

피감기관 630개 역대 최다 ... 하루 42곳 ‘겉핥기 국감’ 되나

국회, 14일~11월 2일 20일간 실시 확정

‘묻지마’ 증인채택도 ... 선택과 집중 해야

박근혜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국회가 1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확정된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73개가 늘어난 630개. 운영위는 이날 상임위별 피감기관을 확정했고, 본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군인공제회와 농협 등 유관 기관 34곳을 승인했다.

피감 기관이 600곳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헌 국회 이래 최다 규모다. 산술적으로는 1개 상임위원회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15일의 국감 기간 50곳에 육박하는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재벌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된 데 이어 피감기관 숫자까지 이런 수준에 이르자 벌써 ‘주마간산 국감’, ‘수박 겉핥기 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폭넓은 감사가 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있다.

◇피감기관 600곳 돌파=예초 피감대상은 639곳이었으나, 정부위의 해외국감 일정이 취소되면서 국책금융회사 해외지점 등 9곳이 막판에 제외됐다. 피감기관 수는 1997년 300곳

에 못 미쳤으나 2001년 402곳, 2010년 516곳 등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던 2011년에는 566개 기관, 19대 국회 첫 국감이었던 지난해에는 557곳에 달했다.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을 제외하면 상임위별로는 평균 49곳이다. 국감 기간 20일 중 주말을 제외한 15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 상임위가 하루 3~4개 기관을 소화해야 하는 셈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피감기관이 104곳에 달한다. 법제사법위(70곳), 산업통상자원위와 환경노동위(53곳), 국방위원회(52곳)도 상위 3개에 랭크됐다.

◇기업인 등 무더기 증인 채택도 논란=삼성·현대차·SK·LG 등 주요 재벌그룹 경영자들을 비롯한 기업인 숫자가 200명에 가까워 전체 일반 증인 4명 중 3명 비율로 파악됐다. 기업인 증인 채택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분석도 있다.

기업인을 타깃으로 삼은 곳은 정부위·산업위·환노위·국토위가 대표적이다. 정부위는 일반 증인 10명 중 9명꼴로 민간 부문 기업인으로 채웠다. 기업인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이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것은 올해 국감에서 유난히 재계 관련 이슈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위의 경제민주화·일감몰아주기 논란, 산업위의 갑을관계 문제, 환노위의 노동문제, 국토위는 4대강 사업 문제가 이런 이슈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거에도 국감장에 ‘줄소환’ 하다시피 한 기업인을 상대로 막상 질문 한 번 하지 않거나 국회의 권위를 앞세워 호통만 치고 끝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는 대표적인 국감 폐해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 같은 국감 현실 때문에 상시국감 도입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요 의제별로 핵심 기관을 집중 검증해야 한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외면

지난해 전체 절반 141개 기관 단 1명도 채용 안해

민주 이낙연 의원 지적

295개 공공기관 중 약 절반이 정부의 고교 졸업자 채용 유도 정책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낙연(사진·담양·장성·영광·함평) 의원에 10일 제출한 ‘공공기관 채용’ 자료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채용한 1만5596명 중 1930명이 고졸자였다.

전체 채용자 중 고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4%로, ▲2009년 3.2% ▲2010년 4.1% ▲2011년 4.2%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141개 공공기관이 지난 한해 동안 고졸자를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전북대병원, 기초과학연구원, 강원대병원, 한국원자력학원, 국립암센터는 10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고도 고졸자를 1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원



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도 1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고졸자를 외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신규 채용 486명 가운데 고졸자는 198명에 달했다.

한국전력은 683명 중 197명, 한국철도공사는 412명 중 140명, 한국수력원자력은 697명 중 132명을 각각 고졸 공채로 선발했다. 정부는 고졸자 채용 인원 수에 비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고졸자 채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의 편견을 깨는데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공공기관 절반이 고졸 채용을 한 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열기자 cki@



“내년 F1 쉴 수도 있다”

박준영 지사 ‘폭탄선언’ ... FOM과 7년 계약 사실상 파기 논란 클 듯

〈F1매니저먼트〉

올 대회 적자 181억 예상

7년 개최 약정 중 4회 개최로 반환점을 돈 포뮬러원(F1) 코리아그랑프리가 후속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회조직위원장인 박준영 전남지사가 최근 4월 개최를 수용한 가운데 또다시 1년 휴식을 언급해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지사는 10일 전남도의회 의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 F1 한국

대회가 6개월 앞당겨진 4월로 배경과 마케팅이나 대회 준비 등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일정 조정을 위해 F1매니저먼트(FOM)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여의치 않으면 내년 대회를 1년이나 1년 반 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가 이미 내년 대회를 4월로 수용한 만큼 1년 휴식이면 2015년 4월이나 10월에 대회를 열겠다는 뜻이다. 이는 대회 운영사인 FOM과의 7년 계약을 사실상 파기할 것이어서 위약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올 10월 대회 이후 6개월 만에 대회 준비가 사실상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내년 4월 대회가 마케팅과 대회 준비, 피로 누적 등으로 제대로 치르기 힘들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태다.

박 지사가 대회 포기를 내비친 것은 내년 F1대회가 올해보다 3개가 많은 22개 대회로 치러질 전망이다. 한국대회는 비수기인 4월로 밀린 만큼

포기를 해도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올해 개최권료를 40%가량 깎은 상태에서 추가 인가가 어려운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지사는 최근 올해 대회 결산 보고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 대회가 마케팅이나 준비 등에 어려움이 많지만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수용한 바 있다.

한편 올해 대회 적자 규모는 500억원에 이르는 개최권료와 대회 운영비

지급 등 지출과 마케팅, 국비지원 등 수입을 감안할 때 181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F1대회 적자는 2010년 725억원, 2011년 610억원, 지난해 386억원이었다.

F1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국비 지원액이 예초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었는데 이 액수가 보전되면 적자규모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여전히 살맛 떨어지게 하는 것들

전남과학대학교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직무능력향상형)

성인학습자 모집

http://www.leagri.or.kr

❖ 지원자격

- 만 23세 이상 성인학습자

❖ 전형일정

모집구분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수시모집	13. 10. 1(화) ~ 13. 10. 31(목)	13. 12. 3(화)	13. 12. 9(월) ~ 13. 12. 11(수)

❖ 전형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는 무관
- 무시험 서류전형 (면접 50 + 재직 및 사업 경력 50)
- 재직 및 사업 경력 산출기준
미취업자 20점, 3년 이상~5년 미만 30점, 5년 이상~10년 미만 40점, 10년 이상 50점

❖ 장학금 혜택

- 전남과학대학교 자체 장학금 지급 기준 적용
-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특별 장학금 지급
- 기타 외부기관 장학금 지급 (장학재단, 농촌희망재단 등)

※ 본 사업은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단기 프로그램이 아닌 정식 학위 과정입니다.

문의 061-360-5348 (평생학습 지원센터)
010-3348-7858 (평생학습 행정담당)

승인 교육기관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직무능력향상형)이란?

급변하는 사회 속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능력 향상이나 취·창업을 꿈꾸는 일반 성인(만 23이상 혹은 재직자)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어주는 사업입니다.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정규 전문대학 졸업자격(**전문학사 학위 수여**)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본인의 학업 열정에 따라 전공 심화 과정으로 **4년제 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모집 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	모집인원	구 분	수업과정
화훼원예과	30명	야간/주말반	2년과정
뷰티미용과	15명	야간/주말반	2년과정
자동차과	15명	야간/주말반	2년과정
호텔커피캠티일과	15명	야간/주말반	2년과정
음악과	15명	야간/주말반	2년과정

❖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학과 소개

- **화훼원예과**: 22년 역사와 1,500여명 화훼동문조직 활동 및 학교기업 운영
- **뷰티미용과**: 전국 미용협회와 협력관계 구축 및 웰빙분야의 신기술 보유
- **자동차과**: 중소기업 기술이전의 우수한 교수인력 및 최첨단 실습장 확보
- **호텔커피캠티일과**: 전국 유일의 학과로서 해외 취업 및 요식 창업주도
- **음악과**: 다양한 성인학습자를 위한 생활음악 교육체제 운영실적 함유